

학교 화장실과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

강석남 사무국장
한국화장실협회

학교 화장실과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

강석남(한국화장실협회 사무국장)

학교 화장실 공간 어떠한가

지난 2000년 서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악취로 꼽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저분해서 볼 일을 참고 집에 까지 갔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은 25.6%에 불과하였고, 화장실에서 꼭 필요한 화장지를 비치한 곳은 32.7%, 비누를 비치한 곳은 3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협회에서 조사한 공중화장실 조사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이 40%, 화장지비치는 78%, 비누비치는 59.5%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 전의 조사라 그 이후 어느 정도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 처음 걸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협회가 작년에 학교화장실세미나를 가졌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는 화장실문화정착을 위해 5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화장실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화장실하면 예쁘고 아름다운 작은 공간으로 이미지가 생겨날 때 화장실문화가 정착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지저분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흡연하는 곳이라는 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는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화장실 공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교육공간으로서의 화장실

수원의 어느 학교는 층마다 화장실의 이름을 달리하여 붙였습니다. 질서, 예절, 효 화장실이라 하여 인성교육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주의 조그만 시골학교는 실내에 작은 연못과 분수를 설치하고 벽체는 한국

의 전통풍물을 주제로 한 벽화를 꾸며 아이들의 꿈과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연천의 작은 학교도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 곳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곳이 작지만 머물고 싶은 예쁜 화장실을 꾸미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 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흡연, 폭력의 공간으로 오용되었던 화장실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음으로써 교육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 학교화장실 공간 어떻게 꾸밀까

(1) 출입구

- ① 바닥은 계단이나 턱을 가급적 낮추어 통행을 자유롭게 한다.
- ②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는 마감재질로 설치하며, 계단 모서리는 논스립 등을 두어 파손 또는 미끄러움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③ 출입문은 손이 출입문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틈새에 고무계의 재질로 설치한다.
- ④ 남 · 여 화장실을 분리하되, 출입구 통로가 같을 경우 마주치치 않도록 배치하거나 시설물로서 차폐하도록 한다.

(2) 바닥

- ① 바닥재질은 미끄럽지 않으며, 오래 사용하여도 변색이 되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 ② 타일의 경우 가능한 규격이 커다란 타일을 사용하고, 바닥면과 벽면의 코너부분은 타일틈새에 때 ·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한다.
- ③ 바닥은 평활해야 하며, 바닥 배수 트랜치가 있을 경우 1/100 구배가 되도록 한다.
- ④ 남자 소변기부분의 바닥재질은 달리 구분하거나, 단 (약 10mm) 높이의 턱을 두어 소변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폭은 약 350mm 정도이나, 소변기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신발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⑤ 바닥 마감재질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하거나, 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평활하도록 한다.

- ⑥ 바닥 배수구의 관경은 75mm 이상을 사용하되 트랩이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커버는 이동이 아니 되도록 고정하고 바닥 면과 단 차이가 없도록 평활도를 유지한다.

(3) 벽

- ① 마감재질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되, 상단부 (높이 : 바닥 면에서 약 1.5m 내외)는 마감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사람과 물이 접촉되는 곳의 마감재질은 변색되거나 때가 끼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하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매끄러운 재질로 마감한다.
- ③ 돌출된 코너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코너몰딩을 사용한다.
- ④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창호설치 면적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외선이 벽면 구석까지 투과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소변기 벽면
 - 0. 소변기의 위생기구의 형태·배관 시공을 고려하여 기존 벽면보다 돌출 (폭 : 약 150mm 내외) 될 수 있도록 한다.
 - 0. 돌출부분의 상단(높이 : 약 1.4m 내외)은 소지품 또는 소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선반을 설치한다.
 - 0. 선반 위의 상단부분은 그림 · 사진 · 홍보 등을 감상하거나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거나, 채광 및 환기용 창호를 설치하여 외부 조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 0. 소변기 부속기구인 자동센서 또는 기타 사용기구 등을 감안하여 전선 및 배관 등을 사전에 설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0. 소변기 칸막이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높이 (약 1.5 m 내외)로 하되, 하단부는 바닥에서 약 500 mm 정도 높이를 띄워 청소관리가 되도록 한다.
 - 0. 소변기 칸막이 깊이는 약 300mm ~ 500mm 정도로 하되, 대변기와의 통행 폭을 고려하여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대변기 벽면

- 0. 서양식변기 후면은 급수배관 및 보온·지하PIT와의 배수배관을 고려하여 기존벽면보다 돌출 (폭 : 약 150 mm)될 수 있도록 한다.
- 0. 대변기 위치가 외벽 면에 위치할 경우 자연채광 및 외부 조망을 고려하여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4) 천 정

- ① 천정높이는 최소 2.4m 이상 유지하도록 하되, 가급적 천정고를 높게 설치하도록 한다.
- ② 천정마감재는 청소가 용이하고 습도에 강한 것으로 한다.
- ③ 천정내부의 설비배관을 점검할 수 위치에 천정 점검구를 설치한다.
- ④ 천정에 조명기구·점검구·감지기·음향시설·냉난방시설 등을 부착할 경우 돌출되지 않도록 천정 면을 평활하게 설치한다.

(5) 다목적 화장실 (Disabled First)

- ① 남녀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1실을 설치한다.
- ② 다목적 화장실의 면적은 사용기구수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할 수 있으나 최소 면적이 5.76 m² (2.4 * 2.4) 이상으로 한다.
- ③ 내부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를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별표1>을 참조하여 시설한다.
- ④ 출입 문
 - 0. 통과 유효 폭 0.8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한다.
 - 0. 바닥 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 0.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등 가벼운 재질로 한다.
 - 0. 여닫이문은 바깥쪽으로 개폐하도록 한다.
(충분한 활동공간이 있을 때에는 안쪽으로 개폐가능)
 - 0. 자동문은 문의 개방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한다.
 - 0. 출입구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등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한다.
 - 0. 출입구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 구별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0. 손잡이 : 중앙지점이 0.8 - 0.9m 사이에 위치한다.
- 0. 변기 및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0. 세정장치 및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또는 누름버튼식,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0.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⑤ 대 변 기

- 0. 대변기는 유효 바닥면적이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 이 되도록 한다.
- 0.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의 회전을 위해 1.4m * 1.4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0. 서양식변기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한다.
- 0. 최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한다.
- 0. 대변기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설치하고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0. 수평손잡이는 0.6m-0.7m 높이에 설치하고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은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0.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0. 세정장치 및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0.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소 변 기

- 0.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0. 소변기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0.9m, 길이 0.55m 내외, 좌우

간격 0.6m 내외로 한다.

⑦ 세 면 대

- 0. 세면대의 상·하단 높이를 0.65m-0.85m 로 설치한다.
- 0.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0. 양옆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0. 거울은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 세로길이 0.66m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6) 청소도구함 및 참고

- ①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한다.
- ② 사용 후 습식 걸레를 보관할 수 있도록 걸이대 등을 설치한다.
- ③ 청소도구를 빨거나 씻을 수 있는 수채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설치한다.

(7) 관 리 실

- ① 관리실은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배치하여 사용자 또는 화장실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 ② 관리실은 다목적실 화장실의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연결한다.
- ③ 내부에 비품 등을 저장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학교 밖 공중화장실변화의 바람

- 이제 학교에서 맞바람이 불어야

▶ 공중 화장실 변화의 계기

지난 수년간 공중화장실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변화되었다. 네모반듯한 형태를 대신하여 건축의미를 고려한 외관, 아늑하고 쾌적한 실내, 아름다운 그림과 꽃으로 단장되고, 클래식과 가요가 흘러나와 이용자들이 마치 문화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변화되었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기저귀를 갈 수 있거나 유아를 동반한 여성도 편리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아기의자를 비치하고 옷매무새를 고칠 수 있도록 파우더 룸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이용자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한 화장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한국 공중화장실에 대한 더러운 이미지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98년에만 해도 한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외국계 인터넷 사이트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여행을 하기 전 가지고 가는 정보와 같이“반드시 호텔에서 용변을 보고 난 후 여행을 즐길 것”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 월드컵과 화장실 문화운동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축구장 중심의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 월드컵은 지구촌가족의 종합스포츠축제로 축구경기는 물론 음악, 미술, 무용, 관광 등 문화·예술분야가 총망라된 종합축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350만 명의 관람객과 430억 TV 시청자를 위한 카메라렌즈도 경기장만 비추지 않고 그들은 한국의 뒷골목까지 살살이 다니며 한국의 인상을 머리에 새겨 갈 것이며 자기가 느낀 바대로 자국에 돌아가 이야기할 것이며 이것이 국가이미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이런 점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의 시작이 되어졌다.

이후 ‘아름다운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 ‘아름다운 화장실은 나라의 얼굴’이며 ‘공중화장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 서비스 공간’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 화장실문화운동의 시작- 아름다운 화장실 모델, 수원시가 만들기 시작

수원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것을 계기로 화장실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수원시는 세계인이 수원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실공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996년말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에 따라 1997년 3월에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문적 토대마련을 위해 1997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2회에 걸쳐 학술회의를 하였다.

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음식점 등 일반영업소와 기업체 등 다중이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으뜸화장실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원의 문화 상징을 담고 있는 으뜸화장실 휘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뿐 아니라 내외 관광객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을 공모하여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수원의 관광지 및 유원지, 등산로 등에 반딧불이 화장실 등 32개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축하였다.

수원시는 ‘문화가 있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적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양식에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을 담았으며, 이 제껏 도외시되었던 장애인, 여성, 노약자의 시설을 갖추었고, 침단의 위생설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 향기, 그림, 꽃, 책꽂이와 음향시설을 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몄으며, 특히 화장실을 소재로 한 ‘화장실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은 1998년부터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아 MBC, KBS, SBS 등 국내방송사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국내언론의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1999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력한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하여, 일본의 니시니혼 신문, 중국의 인민일보, LA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의 주요 신문사와 CNN, 로이터통신, AP통신, 신화사, 이따르타스 통신 등을 통해 세계각국에 소개되어 '새로운 화장실문화의 메카'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방문이 줄을 이었고, 2000년 5월에는 싱가포르의 환경부국장 일행이 방문하여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아 자국의 화장실개선의 중요한 모델로 삼겠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이어서 2002년에는 싱가포르 환경부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 사례는 월드컵 개최도시, 강원도와 같은 관광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한국관광공사의 베스트 화장실 선정,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아름다운화장실 시상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의 결성과 그 활동

여러 정책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원시, 청결한 관광한국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해온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시민단체, 관련업체, 일반시민이 한데 모여 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9년 8월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활동내역은 끝부분 한화협 연혁 참고)

▼ 문화복지·환경 화장실 - 한화협의 화장실 개념

한국화장실협회는 문화·복지·환경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진 화장실을 지향하고 있다.

화장실은 이제 단순한 생리적 배설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만 갖춘 시설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인간의 또 다른 욕구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음악회를 가고, 미술관을 갈 수 있는 기회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화장실은 하루에도 7-8회 많으면 10회 이상을 꼭 들러야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문화를 듬뿍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자연, 꽃과의 교감을 할 수 있고, 향긋한 향기를 음미하고, 시와 그림, 음

악을 감상하면서, 신체의 묵은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공간,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이 거듭날 때 우리의 정서는 새로운 단계로 계발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의 사용편의를 생각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인간의 기초적인 생리욕구,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제껏 장애인화장실로만 사용되어 왔던 공간을 다목적화장실로 개념을 바꾸어 어느 누구도 화장실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누구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화장실에 다목적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말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다'라는 한 장애인단체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시설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화장실에 다용도화장실 개념을 도입하여 유아동반 여성이나 노약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화장실을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로 만들어야 한다.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 자연의 일부분인 듯한 화장실의 외관과 함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정화 시스템을 갖춘 화장실, 또는 화장실내에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화장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노력을 통해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적 화장실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여러 단체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효율적 시스템과 이용 문화의 부족 등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다. 특히 이용 문화의 정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습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학교화장실문화개선운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의 변화가 7년이 걸렸다면 선생님들이 앞장 서 주신다면 학교화장실의 변화는 2-3년 내에 되어 질 것이라 확신하다. 학교에서 화장실문화개선의 맞바람이 불어 2005년까지는 화장실문화가 정착기에 접어들기를 기대한다.

끝마치면서

위에서 화장실면을 잡는 데 주의할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청관계자들께서 직접 드로잉하실 때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도 화장실관계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단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싶어 나름대로 표본을 만들어 본다고 학교화장실 하나를 확 고쳐보았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파손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일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